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3.

“ 좁은 문의 영성 ”

(마태복음 7:13-14)

성경에는 수많은 대조적인 선택지들이 등장합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삭과 이스마엘, 예수나 바라바나 등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명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길을 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넓은 문과 넓은 길 - 율법을 따라 사는 길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중 ‘세속 지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벗어나려면 굳이 좁은 문이라는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도덕 마을’에 사는 ‘율법 선생’을 찾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과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속 지혜의 말을 듣고 도덕 마을 언덕을 오르던 크리스천은, 뇌성과 번갯불이 치는 시내산 아래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양심껏 살면 된다고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의 양심이 도리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우리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마치 ‘만족을 모르는 완벽주의 배우자’와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조건을 맞추려 해도 끝없는 요구와 정죄 속에서 늘 불안과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지만, 결국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세속 지혜가 안내하는 길은 멸망의 넓은 길인 것입니다.

2. 좁은 문과 좁은 길 - 믿음을 따라 사는 은혜의 길

시내산 아래서 절망하던 크리스천에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들려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자 문이 즉각적으로 열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미는 ‘믿음의 손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율법을 완성해 내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이 “행하라”고 요구하며 시내산으로 이끌지만, 믿음은 “다 이루었으니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천로역정에서 율법의 빗자루로 방을 쓸면 죄의 먼지만 자욱하게 일어나지만, 복음의 물을 뿌리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 내 힘과 의지가 완전히 실패하고 깨어진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시작됩니다.

결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인 좁은 문을 외면할까요?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험착하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천국은 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좁은 길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사탄은 유혹하고 분열시키며 우리의 걸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약속하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넓은 길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저절로 흘러가는 내리막길이지만, 좁은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부단히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